

23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2)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크리스천은 멈춰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되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짜기의 절반은 왔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고, 이미 수많은 위험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¹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² 귀신 무리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귀신 무리들이 그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나는 주 여호와와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귀신 무리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천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이 불길이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지 않을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들리는 소리를 멈출 수도 없었고, 비방하는 말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³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을 때,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가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으며,⁴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며, 단지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욥 9:11).⁵ 그리고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앞서 가고 있는 자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때 크리스천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암 5:8)라고 소리쳤다.⁶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났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욥 12:22).⁷

크리스천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다.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위험들이었지만,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은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이 위험했다고 하나, 앞으로 크리스천이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었다.⁹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의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덧과 올라미와 그물,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다. 만약 크리스천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 처럼 지금이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천 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욥 29:3)고 찬송했다.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의 끝에 이르렀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에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가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¹¹ 두 거인의 힘과 횡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¹²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약간 놀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교도는 이미 오래 전에 죽었고¹³ 교황은 아직 살아 있지만 늙었으며,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 동굴 입구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¹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 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서 크리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천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으나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갔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다.¹⁵

오, 세상에!(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귀신 무리들, 지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 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덧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 있으니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¹⁶

<Q&A>

1.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눅 14:34-35)
2. 크리스천의 결심은 어떤 것입니까? (느 4:9, 16-20)
3. 마귀의 이런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요 13:2)
4.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고후 1:4-6)
5.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욥 9:11; 신 1:31)
6.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 24:13)
7. 크리스천은 아침을 맞이했고, 골짜기를 뒤돌아보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삼상 7:12)
8.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 얻어지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후 1:9-10)

9. 골짜기 끝에 이르러 비록 날이 밝았다 하더라도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후 11:30)

10. 시험에 항상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시 66:9-12)

1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교황과 이교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같은 동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① 삼상 4:4, 10-11; 5:5 ② 호 4:6

12. 교황과 이교도를 거인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2:16)

13. 이교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신 4:19; 골 2:18; 사 2:16) 또한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롬 1:28)

14. 로마 가톨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 15:2-3)

15. 오늘날 개혁신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른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80문항 참조)